

고유근층 위암의 근치적 절제술 후 재발에 관한 위험 인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김호일, 목영재, 김승주, 김종석

(배경) 진행성 위암 중 고유근층까지만 침윤한 위암을 고유근층 위암이라고 하고 고유근층 위암은 전체 위암의 10~20%로 보고 되고 있는데, 5년 생존율이 70~85%로 조기위암과 장막층암의 사이에 존재하며 오히려 조기위암에 가깝다. 따라서 고유근층 위암은 진행성 위암에 속하지만 조기위암과 진행성위암의 중간 병기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 생물학적 특성이 진행성 위암과 다르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고유근층 위암의 근치적 절제술 후 임상병리학적 인자에 따른 재발의 위험인자 및 재발의 양상을 분석하여 고유근층 위암환자의 근치적 절제술 후 보다 적극적인 수술 후 치료 및 환자 추적관찰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방법) 1992년 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고려대학교 병원 외과에서 위암으로 진단 후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 받고 조직학적 검사 결과 고유근층 위암으로 진단된 1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재발한 경우(31예)와 재발하지 않은 경우(125예)로 나누어 나이, 성별, 종양의 위치, 종양의 크기, 수술의 종류, 림프절 전이 정도, 육안형, 조직학적 분화도 등의 여러 임상 병리학적 인자를 다변량 분석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전체 대상 환자 156예 중 31 (19.9%)예의 환자에서 재발하였고 재발까지의 기간은 평균 17.2개월로 2년 이내의 조기 재발이 74.2%를 차지하였다. 고유근층 위암의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단변량 분석을 시행한 결과 병소의 크기와 조직형, 림프절 전이여부가 재발과 관계가 있었고 다변량 분석을 시행한 결과 림프절 전이만이 위험도 4.120 (95% confidence interval; 1.356~12.513)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로 나타났다. 재발한 31예의 재발 양상을 분석한 결과 혈행성(38.7%), 국소 및 림프절 전이(25.8%), 복막 전이(16.1%)의 순으로 혈행성 재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혈행성 전이의 재발 장기는 간이 83.3%로 가장 많았다. 고유근층 위암으로 수술 받은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은 95개월로 전체 5년 생존율은 80.9%이고 5년 병외 생존율은 77.7%였다. 재발한 환자의 중앙 생존 기간은 24개월로 3년 이내에 사망한 환자가 74%를 차지하였다. 재발하지 않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7%였고 재발한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3.2 %였다.

(결론) 고유근층 위암의 근치적 절제술 후 림프절 전이 여부가 재발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이들 환자에 있어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광범위 림프절 광청술이 시행되어야 하고 적절한 술 후 보조적 치료가 행해져야 한다. 고유근층 위암은 재발한 경우 2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가 많고 혈행성 전이가 가장 많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보다 적극적으로 추적관찰 및 수술 후 보조요법의 실시가 요구되며 위암의 혈행성 전이, 특히 간 전이에 대한 수술 및 다른 보조요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